

대행 스님

이 세상만사가 전부 인간 마음의 근본에 가설돼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죠? 참, 나도 웃기는 사람이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몰라서 그냥 건둥 건둥 건둥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 뛰어가서 한마디 하고 저기 뛰어가서 한마디 하고. 그렇지만 들으시는 부처님들이 다 들으십시오. 허허허.

그러니 그 재료가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 참, 고칠 수 없는 병이 났다 이럴 때는 나한테 광력이 있기 때문에 안의 그 광력으로써 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력이 있는 그 자체가 불이 항상 들어온다면, 이건 자가발전소입니다. 꺼졌다가 켜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전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북하면 자가발전소라나요. 항상 켜져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꺼진다 켜진다 이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자력이다 하는 거는, 보세요. 자석이면 한계가 있지만 자력이에요. 자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자력은 한계가 없다 이 소립니다. 어느 법계의 소용돌이도, 이 땅바닥에도, 우리가 지금 딛고 다니는 것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딛고 다니는 겁니다. 자력이 없으면 우리는 한 치도 여기 붙지 못합니다, 공중에 뜨지.

여러분이 이렇게 또 허공에 그냥 원만하게 다니시는 것도, 이 허공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꽉 찼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포에 생명들이 없으면 어떻게 모든 것을 들이고 내고 가늠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대기권도 있는가 하면 바로 지구의 대기권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집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바깥의 모든 일도 다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살면 뭐 어디 샐 틈이 있으면 울타리도 하고 들어올 틈이 있으면 잠그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두 인간에게도 세포 하나하나가 법계죠. 작게 따지면 인간의 몸에도 법계가 있고 대기권도 있고 크게 따지면 어느 큰 혹성에도 법계가 있고 대기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많은 중생들이, 요걸 잘 들으세요. 이 중생의 수효가 이렇게 10억이나 되는 수효가, 11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 곱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11억 중의 하나가 한생각을 하는데 원자에서 분자가 그렇게 많아진다 이겁니다. 입자가 많아지고 분자가 많아지고 즉, 원자에서 입자가 그렇게 수효가 많아지고 그 입자에서 분자가 그렇게 수효가 많아지고 그럴 때에 바깥에서 통신도 할 수 있고 또는 들어오는 거 처리도 하고 나가는 거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레이더망의 그 모든 대기권을 주장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하고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경전에서만, 이론으로만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삼천배 하는 거보다 한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은 절에 가서 기도드린다고 추운데 목욕재계를 하고 또 음식도 가리고 남편도 멀리하고 자식도 버리고 그냥 뛰어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백일기도니 무슨 천일기도니 또 삼천배니 백팔배니 하고, 그러고도 주문을 외우고 그러느라고 아침 새벽에도 다복하게 남편한테 오손도손 따뜻하게 해 주지 못하고 애들한테도 못하면서 외딴 방에 가서 주문을 외우고 귀신 노릇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귀신 노릇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겠느냐고요. 여러분이 귀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 노릇을 여러분이 안 한다면 귀신이 아예 없어요.

어느 때에 어느 신부님이 날더러 이렇게 묻더군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귀신 노릇을 한다면 귀신이 있을 테고 귀신 노릇을 안 한다면 귀신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꼭 물로 인해 해를 볼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가에 안 갔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신도님들이 모여서 초대를 해서 갔는데 층층대가 이렇게 있는 집인데 아, 신부님이 오시니까는 그냥 말갛게 층층대를 전부 물로 닦았단 말입니다. 물로 닦았는데 올라가시다 그 물에 미끄러져서 그냥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허리를 못 쓰고 일 년이나 일 년 반쯤이나 돼서 인제 겨우 일어났다는 거지.

그런데 없습니까 이거야, 날더러. 귀신이 없습니까 이 소리지. "아이 참, 신부님 이상하십니다. 아니, 신부님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귀신에 그렇게 말리지 않을 건데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귀신에 말리죠."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끔벅끔벅하더군요. 그러면서 아, 그럴 법하다 하고 아, 거기서 그러곤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고요. 그다음부터는요, 그 신부가요, 야 참, 내가 생각하니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이름도 간판으로 붙여 놓은 것뿐이지 모두가 둘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책도 나오는 대로 가져가시고요.

그런데 그게 흉이냐. 그게 아니에요. 서로 서로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 말하기 이전에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산천초목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고, 물에서 들에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고 끝과 종점이 없이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진리인데 어찌 인간이 이게 잘못이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러고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라면, 내 자리 네 자리 찾겠습니까?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안에서 더군다나. 아니, 그 버스 안에서 내 자리 네 자리를 찾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리 네 자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 버스 안에서. 허허, 재미있는 일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앉으셔서 그 마음으로 집에 한번 횡하게 다녀오세요. 빛보다 더 빠를 테니까요. 어떠세요?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심안의 눈으로써 천체를 탐험할 수 있다는 사실. 마음 안에 그 진짜 마음으로 천체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나 아님이 없기에 못 하는 게 없고 잘한다 못한다 이게 없다 이거야. 이 언어가 붙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유스럽다.

이렇게 좋은 법을 이러니저러니 하고, 천만 가지를 갖다가 법당에다 올려놓고 빌어 보십시오. 대가가 오나. 위안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좋은 일이 오겠지.' 하는 위안.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으로 내가 잘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가 봐서 못살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갖다 줘. "이걸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좀 더 보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갖다 주라고. 가다가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쌀도 사 줘.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양 무제가 그렇게 스님네들 옷을 많이 하고 집도 사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왕이. 그런데 달마 대사한테 "저는 얼마나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리로서 약사발을 안겼죠. 그런데 달마 대사는 죽어서도 그 양 무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 무덤 속에 묻혔는데 거기 신발 한 짝만 남겨 놓곤 턱하니 주장자에다 신발 한 짝을 꿰어 가지고는 턱 나와서, 즉 말하자면 뭡니까, 왕이 보내는 그, 사신! 사신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달마 대사하고 턱 만났단 말입니다. 아, 만나서 인사를 깍듯이 하고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난 서쪽

☞ A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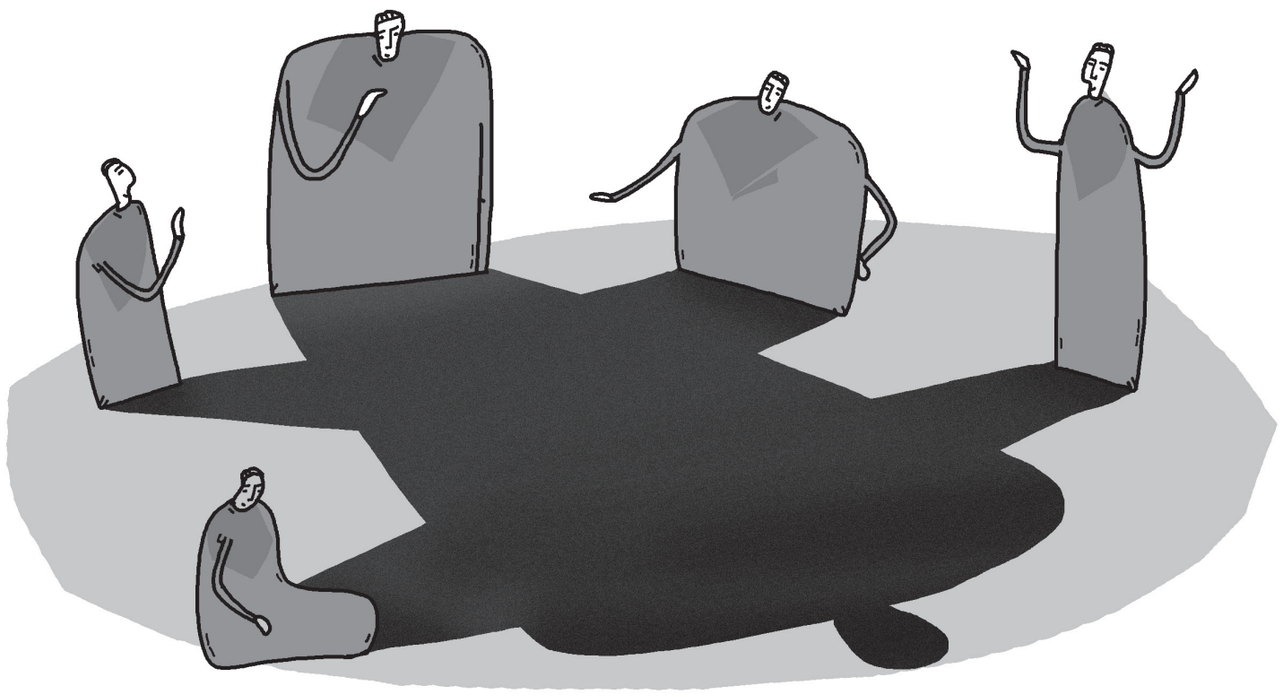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전화 051)403-6701 www.한마음유치원.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